

“극단 활성화 위해 모든 것 쏟아야죠”

광주연극협회 고난영 신임 회장
배우 출신 광주 첫 여성 회장
시립극단 시즌 단원제 보완
‘평화연극제’ 리모델링 등 포부



고난영 회장



연극 '레옹스와 레나'에서 교장선생님 역을 맡은 고난영 회장(가운데).

〈광주연극협회 제공〉

“최초여성회장”이라는 수식어 속에 기쁨과 부담감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최초라는 타이틀은 많은 관심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그만큼 회장으로서 극단이 마주한 숙제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산·후배 극예술인들과 함께 뛰면서 가시적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다, 최대, 최고(最古)라는 수식어는 관심과 부담을 동반한다. 최근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광주연극협회) 제14대 지회장으로 선임된 배우 고난영 신임회장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다. 광주연극협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 회장이 선임됐다는 점은 앞으로 광주 연극계에 다가올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게 만든다.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를 졸업한 고 회장은 광주연극배우협회장, 광주여성연극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8년 극회 ‘정.풀이’에 입단한 뒤 1989년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데뷔, 그동안 연극 ‘칠산리, 불타는 별들’, ‘달맞이꽃’, ‘청년 김대중’, ‘거대한 뿌리’, ‘섬 옆의 섬’ 등에 출연했다.

고 회장은 20년간 유지해 온 ‘평화연극제’를 리모델링하고 협회 유튜브채널 활성화, 합동공연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광주 연극계의 한 축이 되는 광주시립극단과 공조해 ‘시립극단 시즌 단원제 보완’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립극단은 국립극단의 작품별 프로젝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2012년 재창단했지만, 국립극단마저 한계를 절감하고 방식을 바꾼 단원제의 한계를 마주했다”며 “이 밖에도 시립극단은 상임단원 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형평성, 레퍼토리 공연의 지속성 등 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극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광주연극협회와 광주시립극단이 협력해 지역 극단의 운영 시스템에 건설적인 제언을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등에서 동아리, 연극 강사로 다년간 활동해온 경력도 눈에 띈다. 고 신임회장은 2004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지원을 받아 문흥중, 용정중에서 동아리 연극 강사로 일했으며, 여수남초·유덕중·서강중 등 다양한 청소년 예술교육 현장에서 미래 연극인을 양성해 왔다.

이 경험의 연장선에서 그는 지역 전문가와 함께 하는 ‘청소년을 위한 연극 워크숍’을 진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예술 씨앗들을 ‘파종’해야만 미래의 지역 극예술이 융성하

리라는 생각에서다.

고 회장은 “2028년 광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5개 시·도를 대표하는 극단들이 경연을 펼치는 전국연극제는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려 그의 미가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고 회장은 “레퍼토리 구성, 세트 구성, 명확한 주제 의식 설정 등 연극제 진행을 위한 ‘선 작업’들이 많다”며 “예산, 인력, 시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르지만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해 좋은 공연을 꾸려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 신임회장은 광주연극제 신인상을 비롯해 연기상(3회), 한국연극협회 전국연극제 연기상, 광주연극인상 등을 수상하면서 지역 내·외 극예술계에서 활동해 왔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원광연 전(前) 지회장이 최근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치른 보컬선거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부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배우 노희설 씨가 선출돼 함께 협회를 이끌게 됐다. /최류빈 기자 rubi@

하늘·바람... 삶 껴안은 시와 그림

진도 출신 김양수 시인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펴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돌고 돌아 여귀산 자락으로 돌아온 화자는 “서 있는 이 자리가 본래 내 자리인 것”이라고 되뇌인다. 인생은 모두 본질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바람결에 실려왔고”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 등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늑한 고향 산천에 등지를 틀고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진도 출신으로 화가이자 시인인 김양수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작가는 고향 진도 여귀산으로 돌아와 집을 짓고 산 지 벌써 5년째다. 그에 따르면 여귀산 보았던 여귀산은 높고 웅장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다. 그러나 낙담한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업실이 1년 전 화마로 모두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특출 털고 ‘이견토굴’을 임시로 마련했다.

최근 그가 시와 그림이 담긴 시화집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 (열린시학)를 펴냈다.

동국대 미술학부와 중국 중앙미술대에서 벽화를 전공하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에서 38회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던 그는 신문 등 매체에 글과 그림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번 시집은 시와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수묵화는 땅과 하늘, 자연, 바람 등의 흔적과 풍광을 담고 있다. 관조의 시선은 물론 넉넉함과 여유로움, 내면의 자유가 필묵에 따라 옷이 펼쳐져 있다.

“바람결에 실려왔고/ 바람 멈춘 이 자리에 뿌리 내리고/ 한 생을 살아간다/ 한뼘의 햇살에 / 한줌의 바람에 / 쓰다듬는 손길에 / 감사하며 깨닫는다 / 서 있는 이 자리가 / 본래 내 자리인 것을”

‘내자리’는 고향에 등지를 튼 화자의 심상을 엿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돌고 돌아 여귀산 자락으로 돌아온 화자는 “서 있는 이 자리가 본래 내 자리인 것”이라고 되뇌인다. 인생은 모두 본질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바람결에 실려왔고”

더러는 떠내려가며 마지막 뿌리를 내릴 자리를 찾는 것이다. 특히 작품 ‘보이지 않는 길’은 고향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시간들을 반추하는 작품으로 잔잔한 여운을 준다.

이처럼 경기대 명예교수(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장)은 “그의 그림들이 너무 평온하고 아늑했으며 시는 부드럽게 세상을 껴안고 있다”며 “작품과 혼연일체가 된 묵연 수행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무궁에 닿아있음을 절감하였다”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세월 지나 산 속에 앉아 그림도 그리고 농사도 짓는 일상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며 “그림도 농사도 수행이다. 수행자의 마음을 놓치면 그림도 농사도 그르치고 만다”고 전했다.

한편 김 시인은 작품집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등을 펴냈으며 20일까지 진도 여귀산미술관에서 이번 시화집 출간 기념 전시를 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충장축제 굿즈, 아무때나 보러 오세요

‘충장프렌즈 하우스’ 개소...키링 등 20여 종 판매



소덕이, 추, 로라 등 귀여운 모습으로 MZ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충장축제 캐릭터에는 ‘충장프렌즈’라는 애칭이 있다. 이들을 활용한 굿즈 상품을 상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최근 오픈했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장현·재단)은 지난 13일 충장의 집(충장로 3가 2층)에 ‘충장프렌즈 하우스’를 열었다. 충장축제 캐릭터를 시민·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종의 충장축제 캐릭터에는 ‘충장이’, ‘금남이’를 비롯해 무등산 아기호랑이 ‘소덕이’, 불꽃 형태의 캐릭터 ‘부리’, 아이들이 되고 싶은 토끼 ‘추’, 하늘다람쥐 ‘로라’, 정직한 ‘고고’ 등이 있다.

굿즈샵 내부는 MZ세대를 겨냥해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는 컨셉으로 꾸며졌다. 영화 헤리포터와 헝가리 부다페스트풍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으며 지비츠, 키링 등 총 20여 종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우인형 만들기와 인형뽑기 체험, 캐릭터 포토존 등이 마련돼 있다. 충장의 집 1층에는 무료 편의시설을 운영 중이며 3층에는 여행자 기억저장소(다담)에 80-90 컨셉으로 공유 스튜디오



디오(무료 촬영)를 운영 중이다.

재단 문장현 대표이사는 “프렌즈에 따른 굿즈 판매, 다양한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충장프렌즈 하우스 굿즈샵을 동구의 ‘핫플’로 만들겠다”며 “알파세대 및 MZ세대 유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문학은 음악과 이야기를 신고

각화문화의집 ‘길 위의 인문학’ 22일~10월24일 매주 목요일

다양한 음악 연주에 인문학 토크를 곁들이는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광주 각화문화의집이 ‘길 위의 인문학’을 오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마다 문화관람실에서 총 10회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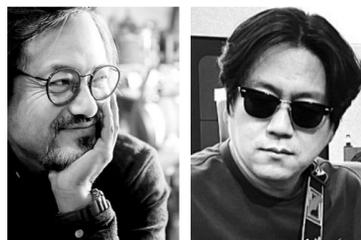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음악을 만나자’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상송, 포크락, 컨트리음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 이야기, 인문학 탐방 등으로 채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진행되며 행사는 지역민 선착순 20명 모집.

월드뮤직 전문가이자 다중예술가로 알려진 임의진 강사, 달빛통명 포크콘서트 음악감독(및 기

타리스트)인 안후가 강사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들은 음악적 지식을 결합한 강연과 노래를 곁들이 시민들을 만난다.

음성합성 엔진을 사용해 개발한 보컬로이드(보컬+안드로이드) 하츠네 미쿠의 재즈곡 ‘미라클 페인트’가 울려 퍼진다. 이어 양희은의 ‘행복의 나라로’, 김민희의 ‘그 사이’를 비롯해 카펜터스의 명곡 ‘잡발라야’, ‘탑 오브 더 월드’ 등이 연주된다.

임의진 강사는 EBS 세계테마기행 ‘멕시코편’ 등에 출연했으며 시인이자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자의 노래’ 등 다수 음반을 발매한 이력이 있다. 안후 강사는 연주 듀오 ‘아뉴와 조베’에 소속돼 있으며 이메진 테크 음악감독 등을 역임했다.



임의진 강사

안후 강사

정관용 각화문화의집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예술 감성을 증진하고 세계 각국의 음악을 선보이는 인문학 강의를 마련했다”며 “보사노바, 레게, 탱고, 로큰롤까지 다양한 음악에 얽힌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각화문화의집 우선 참여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